

목포대양산단 김 가공업체 입주 잇따라

15개 업체 분양계약...가동뎀 전국 마른김 생산 25% 이상

원재료 확보 용이, 해수·광역상수도 공급, 교통망 사통팔달

목포대양산단이 국내 김산업의 대표산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23일 목포시에 따르면 대양산단에 식품제조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14만㎡(22필지)가 모두 분양됐으며, 이 중 2017년 수출탑 수상 등 국내 굴지의 15개 김 가공업체가 입주해 가동 중이거나 가동 준비 중이다.

이들 업체가 모두 본격 가동하면 대양산단은 전국 마른김의 25% 이상을 생산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김가공 생산단지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아울러 500여 명의 일자리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양산단 입주 제1호 김 가공기업인 (주)기리미는 가동 1년만에 23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고, 500만 달러 수출탑을 수상했다.

이어 지난해 8월 (유)청해에스엔에프 올해 2월 (주)대륙이 잇따라 공장을 가동한 가운데 연매출액 200억원이 넘는 마른김업체 선두주자 선진수산업이 공장 가동을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1000만달러 수출탑을 수상한 만진식품(주) 올해 안에 건축에 착수하고 만진식품 협력업체인 (주)아리가 조만간 가동에 들어간



목포시는 대양산단이 국내 굴지의 15개 김 가공업체가 입주해 가동 중이거나 가동을 준비하고 있어 국내 김산업을 대표하는 산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속속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는 대양산단 전경.

이 밖에 전국 규모의 대천김(주), 대천맛김(주), 선진레이버, 신일수산업이 아사쿠라식품도 조만간 입주해 수출용 조미김과 초밥용 김을 생산할 예정이다. 협력업체로 300만달러 수출탑을 수상한 (주)하이준도 인접 필지에 입주한다.

도가 공급돼 위생적인 제품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산단을 관통하는 서해안고속도로를 비롯해 무안국제공항, KTX, 목포신항 등 육해공을 원활하게 연결하는 사통팔달의 교통망,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 상해와 국내 최단거리 등 입지가 우수하다.

대양산단은 981억원이 투자되며 60여 개 가공공장 5층 규모의 냉동창고 창업 및 무역지원센터 등을 갖춘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도 추진 중이며, '국립 김 연구소' 건립, '국제 김 거래소' 유치도 계획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김 산업 호황과 수출 증가세로 수산식품 기업의 분양 문의가 잇따르고 대규모 김가공업체도 입주를 타진하고 있어 식품제조업 입주 가능용지를 추가 확보할 방침"이라며 "연관 기업 등 유망 강소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양산단은 현재 분양대상 107만㎡ 중 46만㎡가 분양돼 43.04%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수산식품 등 57개 기업이 입주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17개 기업이 현재 공장을 가동 중이며 11개 기업이 신축 중이다. 이 외에도 29개 기업이 금융 및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섬진강 봄바람 맞으며 곡성을 달리다

자전거 타고 곡성 구석구석 힐링 투어 160여명 참여 성료

곡성군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가족, 친구, 연인이 함께 하여 160여 명의 투어단이 참여한 가운데 기차여행과 자전거 여행을 모두 즐길 수 있는 '2018 곡성 자전거 투어'를 진행했다.

곡성군이 주최하고 전라남도외국관광공사가 후원한 이번 투어는 (주)여행광장 주관으로 운영됐다.

서울과 천안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에코레일 자전거 열차를 타고 내려온 160여 명의 자전거 투어단은 자전거를 타고 곡성 구석구석을 누비며 무르익은 남도의 봄을 만끽했다.

투어단은 1박 2일 동안 곡성이

지랑하는 섬진강과 대항강변 명품 자전거길을 봄바람을 품고 달렸으며, 섬진강기차마을, 압록유원지, 대항강 출렁다리 등 곡성 대표 관광 명소를 경유하며 여행을 더욱 풍성하게 즐겼다.

한 참가자는 "이번 투어를 통해 강과 산이 어우러진 자연을 달리며 남도여행의 참맛을 느낄 수 있었고 초급자부터 고급자까지 수준에 맞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코스가 인상적이었다. 1박 2일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자전거를 타고 달리며 곡성을 두루두루 경험하는 알찬 여행이었다"고 말했다.

곡성=김광휘 기자

영암군, 장애인 사회 문화 현장체험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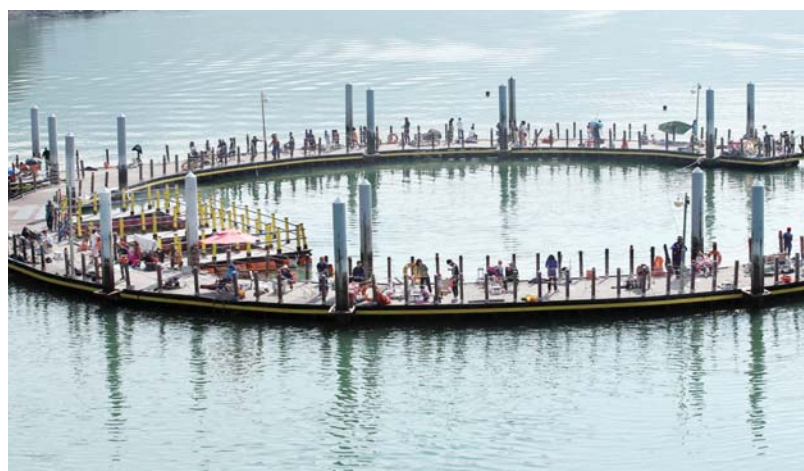
영암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난 23일 '봄바람을 싣고 나와나 힐링'이라는 주제로 장애인 130여 명을 대상으로 순천만 국가정원과 낙안읍성으로 장애인 사회문화 현장체험 학습을 다녀왔다.

이번 장애인 현장체험 학습은 평소 아의 나들이가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에게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정원관람과 과거와 현재가 함께 공존하는 낙안읍성의 전통기옥과 생활 풍경을 관람하는 아의 나들이를 통해 장애인 간의 친밀감 향상과 스트레스 해소를 돕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됐다.

군 관계자는 "연2회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현장체험학습은 아의 나들이가 쉽지 않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문화를 체험하는 산 교육장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건강증진 및 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강진군, 가우도 '복합낚시공원' 개장 오는 1일부터...주변 경관과 어우러진 힐링 낚시터



강진군에서 아슬하게 진행되고 있는 2018 A로의 초대 핵심지원인 가우도 복합낚시공원이 오는 5월 1일 개장한다.

계절에 따라 감성돔 등 다양한 어종이 잡히고 한곡관광 100선에 선정될 만큼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꾸준한 관리를 해왔다. 복합 낚시공원은 가우도 마을화에 위탁하여 매년 운영하고 있다.

가우도 복합낚시공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명등을 입어야 입장이 가능하며, 1일 사용료는 성인 1만원, 소인 5천원을 받는다. 낚시 초보자를 위한 현장 낚시지도와 낚시장비 대여, 미끼 판매 등으로 낚시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사계절 낚시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김영기 해양산업과장은 "출렁다리와 정자 조형탑, 집트랙 등 볼거리와 힐링을 얻을 수 있는 가우도에 매년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다"며 "복합낚시공원의 이름에 걸맞게 낚시와 주변 관광시설을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가족, 연인이 함께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전국 제일의 낚시터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가우도 복합 낚시공원은 5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 7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강진=김영일 기자

생으로 먹는 '해남 초당옥수수' 웰빙간식으로 소비자 인기몰이

올해 20ha 450톤 생산

웰빙 간식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생식용 옥수수가 해남에서 본격 재배된다.

해남군은 올해 관내 15농가, 20ha 면적에서 올해 생으로 먹는 옥수수인 '초당 옥수수'를 재배한다.

초당 옥수수는 1990년대 후반 일본에서 개발된 간식용 쪽옥수수로 일반 옥수수에 비해 당도가 매우 높아 초당(超糖 super sweet corn)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다.

특히 괴일 못지 않은 높은 당도와 아삭한 식감을 살려 생식으로 섭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웰빙 간식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100g당 칼로리가 90kcal로, 찹옥수수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고, 섬유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비롯해 카로티노이드 등 항산화 물질도 풍부하다.



지난해 7월 북일면 금당리 김성일씨 농가 초당옥수수 수확현장

해남산 초당옥수수는 엄격한 재배관리와 선별로 무게 400g, 20브릭스 이상 당도의 최상품만을 출하하고 있어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해 13ha에 이어 올해는 20ha까지 재배면적을 늘릴 예정으로 6~7월경 총 450여톤을 수확할 예정이다.

◆ 광주 지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중암 010-3365-6200	광산 010-5604-6533
학운 010-4166-1810	송하 010-8620-1925	광천 010-6612-8599	임동 010-2656-4543
금호 010-6636-2775	양산 010-2646-3205	상무 010-5359-7406	오치 010-7532-3313
풍암 010-6634-5084	북구 010-4601-2080	화정 010-8438-3819	동운 018-611-7751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 시 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10-9578-5900
무안 010-5234-2313	장성 010-5287-7711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진도 010-3081-520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화순 010-2077-6464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호수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마른길을 열어줍니다”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